

새로운 음악문화 수용을 위한  
제의적 공간으로써의 평양  
- 1920~30년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의 음악적 만남 -

김 사 랑

1. 들어가며
2. 기독교 영향력의 확장과 서양음악 향유를 위한 토대 형성
3. 변화의 이면, 평양지역민들의 입장과 태도
4. 문명을 향한 제의적 공간
5. 나가며

## 개 요

1900년대 전반기의 평양은 기독교 선교의 주요 거점이자 선교사들의 활동 무대였기에 교회적 영향력이 상당했으며, 특히 1907년 대부흥 운동 이후 교세의 확장은 도시문화 전반의 변화를 촉발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여럿 생겨나”는 등 “도시 전체가 급속하게 기독교화” 되고 있다는 여러 증언은 종교적 영향력에 힘입어 서양 음악교육 또한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평양의 기독교 확산과 함께 근대화에 대한 열망은 많은 수의 기독교 사립학교가 세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평양의 대표적인 기독교 미션스쿨 송실과 송의, 송전은 미북장로교회 파성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로, 다수의 초기 한국 음악가들을 배출해 낸 산실이다. 20-30년대에 이르면 가창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 등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음악교재들이 출판되기도 한다. 특히,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전문 음악 선교사들이 장, 단기로 한국에 머물며 음악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말스베리 부부(Malsbary), 러츠(Luts, D. N.), 부츠(Boots, F. S.), 솔토(Mrs. D. L. Soltau) 등이 그들이다. 이는 보다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국내 음악교육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바로 이러한 선교사들의 활동이 선교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평양의 선교기지가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크고 집약적이었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120에이커에 이르는 방대한 공간에 선교사 사택, 학교, 병원, 운동장, 홀 등이 모여 있어 선교사뿐 아니라 수 천 명의 한국인들이 드나들었던 곳이다. 두터운 자본가층의 한계, 지역차별의 역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경험, 피식민의 현실은 선교기지를 드나드는 평양민들을 문명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명을 표상한 다양한 형태의 화성적 사운드가 울려 퍼진 선교기지는 평양민들의 지역적, 상황적 특수성과 만나 근대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도록 추동하는 제의적 공간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선교사, 서양음악, 제의, 근대, 문명화, 음악교육, 기독교학교, 평양, 송실전문

## 1. 들어가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평양이 갖는 위치는 특별하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는 일대사건이 한반도의 기독교 확산에 있어서 빅뱅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대부흥 운동 전후 교인의 폭발적인 증가로 천 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생겨나기도 하고, 지속적인 교회 개척을 뒷받침하는 지원과 후원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선교정책에 따른 교육사업이 한국인들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남녀일반학교는 물론 신학교, 외국인학교, 성경학교, 장애인학교, 기술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다수 설립되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교회와 학교가 음악교육의 장으로 역할하며 한국음악계를 이끌 재목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을 제공하였다. 김형준, 김영환, 박윤근, 박경호, 윤심덕, 현제명, 윤성덕, 김세형, 김동진 등 굵직한 1세대 작곡가들이 대부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 출신이라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교회의 확장과 서양음악의 영향력은 함수관계를 갖고 발전하였다는 점, 한국의 초기 음악가들 가운데 평양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양은 선교사와 음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주목해야할 도시임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한 장의 조감도는 새로운 흥미를 유발한다. 아래의 [그림1]은 미국장로교 아카이브인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이하 PHS)<sup>1)</sup>에서 입수한 것으로 1920년대 중반 미북장로교 평양 선교기지를 담고 있다. 이 조감도는 학교와 선교사 사택, 병원 및 넓은 운동장 등이 120 에이커에 이르는 공간 안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7개의 거점 도시에 마련되었던 선교기지 가운데 평양은 가장 크고 집중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북장로교 보고서에 의하면, 1900년에서 1933년까지 개최된 선교회 연례 모임 가운데 평양에서 열린 횃수만 19회에 이른다. 기독교

1) 장로교 역사 아카이브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해 있다.

의 교세가 컸던 만큼 평양이 갖는 교회적 영향력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모든 기관이 구내에 집중되어 있다는 편리성이 연례회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꼽힌 이유다. 이러한 공간적인 특징은 서구 문화가 곧 문명을 의미했던 한국인들에게 또 다른 시공간적 의미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경성의 외국인 거주지 정동은 선교사들을 비롯한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이 드나드는, 그야말로 정치·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내부 속의 외부로 기능했다면, 평양은 그보다 종교·문화적 영향력이 응축된 근대적<sup>2)</sup> 도시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음악문화의 의례적 역할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공간<sup>3)</sup>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평양에서 서양음악이 빠르게 흡수되었을 뿐 아니라 수준 높게 발전할 수 있었던 기저에 위와 같은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컸음을 전제로, 평양의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선교사들의 음악 활동 전반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는데 목적을 둔다. 특별히 20-30년대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한국선교가 부흥기를 지나 안정기로 접어들었으며, 또한 서양음악이 생경함을 벗고 ‘소리적 경험’으로서의 서양 음악이 일상적 층위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했던 시기<sup>4)</sup>로서 그 변화의 일면을 살펴볼 필요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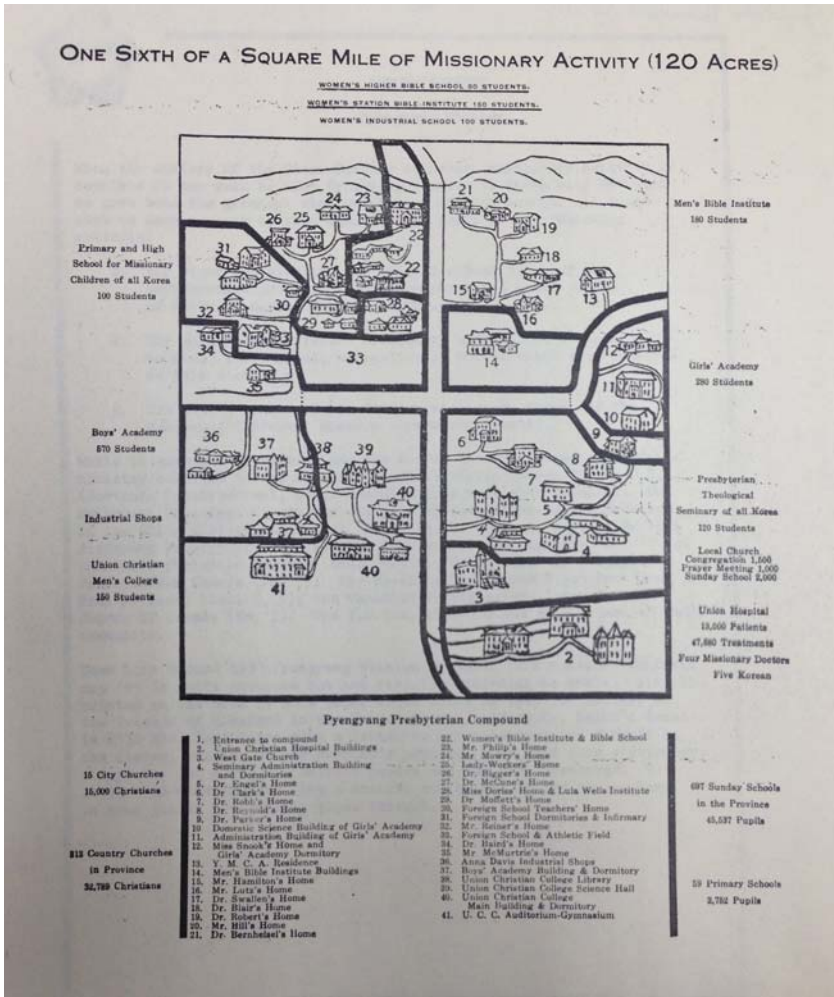
- 
- 2) ‘근대’ 혹은 ‘근대성’은 19C말 ~ 20C초의 역사를 되짚어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하나의 통일된 표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 개념은 문명화, 서구화, 도시화 등 다양한 함의 속에 정의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평양이 가지는 기독교적인 영향력은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기독교적 문명화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서구라는 모델을 추구하는 문화적인 문명화의 측면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 3) 공간은 교육을 가능하게 해 주는 한 여건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교육의 한 요소가 된다. 특히나 근대적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새롭게 길들여지며, 전에 없던 육체적 취향이나 특징, 능력 등을 가지면서 새로운 인간형으로 변모해 간다. 선교 기지라는 근대적 공간은 새로운 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있던 한국인들이 근대인으로 전환 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4) 20-30년대에는 일본에서 유색된 서구음악과 선교사의 음악문화, 초기 한국인 음악가들이 역량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모든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음악교과가 일반화된 시기로, 학교라는 근대적인 체제 속에서 벌어진 음악 활동은 경험을 통해 서구

먼저 선교기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영역에서 일어난 현상에 주목하겠다. 당시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 평양기지를 방문하여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한국인들을 만나고 선교사역에 몰두했다. 그들에 의해 전개된 음악적 실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음악교육의 특징은 당시 음악문화의 변화 양상을 조망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이 공간을 둘러싼 한국인들의 주변적, 정신적 상황은 어떠했는지 컨텍스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양이 갖는 사회·문화·역사적인 특징과 학교를 통해 배출된 엘리트들의 근대 문명에 대한 욕구가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서구음악 흡수력을 촉진시키는지 간략하게나마 그 궤를 탐구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사운드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공간과 한국인들의 근대를 향한 욕망이 만나 일어난 화학적 반응에 대해 해석해 보도록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현상과 컨텍스트를 토대로 평양이라는 도시, 그리고 대규모 단지를 형성했던 선교기지가 갖는 음악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

음악이 일상화되고 체화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소리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요한 전환기로 보고 수적인 우위를 점했던 기독교 학교(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주일학교를 포함하여)에서의 20-30년대 선교사 음악활동 연구의 타당성을 부여한다.

(그림 1) Pyeongyang Presbyterian Compound



## 2. 기독교 영향력의 확장과 서양음악 향유를 위한 토대 형성

### 1) 1907년 대부흥 운동과 교회의 비약적 성장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시발점으로 우리나라 전반에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그 정점에 달했으며,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성장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1907년 10월자 *Korean Mission Field*(이하 *KMF*)<sup>5)</sup>는 당시 상황에 대한 놀라움을 증언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부흥 현상 가운데서도 특히 평양에 대해 “도시가 기독교화 되어간다”라면서 “몇몇 교회는 천명이 넘는 신도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흥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부흥운동은 이러한 움직임에 기름이 된 격이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 신자의 증가추세는 30년대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1904년 1만 명 정도의 신자가 꾸준히 늘어 1920년대 초반에는 3만 5천을 웃돌았고, 1930년 대 초반에는 5만 4천 이상의 신자가 보고되고 있다. 1920년대 무렵 평양의 인구가 10만 정도인데 그 가운데 1만이 기독교 신자였고, 1920년 전후 평안남도의 교회 수는 전국적으로 10.9% 해당하는 265개로 당시 서울·경기보다 많았다. 당시 평양이 가진 교회적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상당한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가운데 주일학교의 성장은 매우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Historical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에 의하면 평양 선교기지를 중심으로 한 보고를

5) 1905년 11월에 창간되어 1941년 11월에 폐간되기까지 국내에서 선교사들이 발행한 영문 월간잡지이다. 이 자료는 한국 교회 역사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반에 관한 문헌으로 한국 근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주한 외국인과 본국(미국)에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업의 현황과 정보를 교환하고 선교지원 요청하려는 목적으로 매달 천 부 이상 발행되었다. 1917년 12월호까지는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후쿠인(복음) 인쇄소에서, 1918년 1월호부터 폐간되기까지 서울의 YMCA에서 인쇄되었다.

통해 1929년 주일학교의 학생 수가 6만에 이른다고 기술하고 있다. 1921년 본격적으로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조직된 이후로 세계주일학교대회 등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등 그 성장세는 세계 교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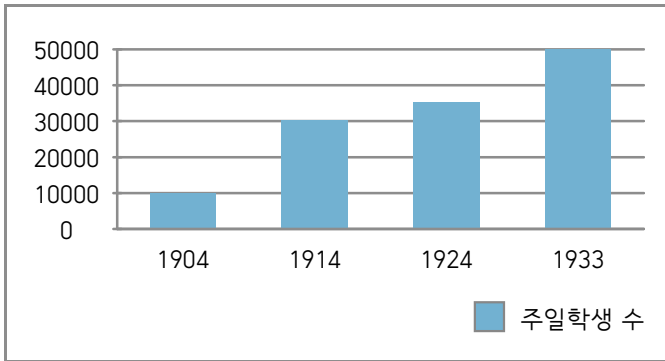
주일학교의 성장이 주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선교사들에 의한 교회 교육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이 소외계층 학들을 모아서 시작된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한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주일학교 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진 신앙교육만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기독교 학교교육과의 연계성 속에서 발생한 사회 교육적 의미의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6)</sup> 이는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일본총독부의 선교사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교회가 담당했던 사회교육의 측면을 위축되게 하고 신앙교육의 집중과 강화를 촉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근대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한국인을 양성해야한다는 주일학교의 기본적인 성격은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주일학교는 신앙과 사회적 의식을 갖춘 한국인을 양성하는 장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식민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호소력을 갖춘 공간이었다.

요컨대 주일학교의 성장은 단순히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커졌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없으며, 일반 사회교육의 차원을 선호한 한국인들의 필요가 충족되는 공간으로도 기능했다.

6) 손원영, “한국초기 주일학교의 특성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18 (2008) 159.

(그림 2) 주일학교의 성장세

*Historical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 2) 신교육에 대한 열망과 다양한 학교의 설립

주일학교의 성장이 보여주듯, 한국인들의 신교육에 대한 열망은 교사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는 선교사들의 부담을 압도하는 것이었다. 선교사들은 신교육에 대한 요청이 매우 컸음을 여러 지면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교육선교에 헌신했던 노블과 밀러 선교사 등은 “배움에 대한 굶주림”이란 표현으로 당시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평양을 비롯한 서북지역의 선교를 주로 담당하고 있던 북장로교는 일반 교육 자체보다는 교육을 통해 교회 일꾼을 양성하는 이른바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컸다.<sup>7)</sup> 그만큼 종교적으로 보수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이

7) 선교연합공의회는 1907년, 교단 간의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선교 지역을 분할 하였고, 평양은 주로 미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역이었다. 주한 미북장로교회가 1891년에 채택한 교육의 기본 규칙과 세칙 가운데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종교적,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세 번째는 “미션스쿨의 주된 목적은 조선교회의 발전과 조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지도자를 육성하는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Standing Rules and Bylaws, Section C. Article III,” 이성진, 『미국 선교사와 한국 근대교육』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67.에서 재인용.

강했고, 엄청난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교세의 확장과 기독교인 양육에 몰두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일만세 운동 이후 주한 선교사들이 미션스쿨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는 서신을 조선총독부에 보내고 이후 일제가 발표한 ‘신교육령’에 따라 지정학교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간에 미션스쿨에 주어졌던 불이익이 상당수 해소되기 시작했다. 대규모 독립운동에 충격을 받은 조선총독부는 유화책으로 미션스쿨에 성경교육을 허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직업학교, 맹아학교, 고등교육기관 등 다양하고 많은 수의 학교가 설립되고, 종교 교육이 가능한 커리큘럼으로 학교환경이 조성되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평양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광린<sup>8)</sup>, 오미일<sup>9)</sup> 등에 의하면, 평양은 을사늑약 이후에도 일본의 상권 확대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만큼 한국 상인들의 저항의지가 강했고 전통적으로도 상인층이 두텁게 자리 잡은 지역이었다. 조선 후기부터 용이한 접근성과 풍부한 물자를 바탕으로, 청(淸)을 상대로 상업적 기반을 형성한 이들은 일찍이 청에서 유행하는 서구 문물과 그 발전상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다. 타 지역에 비해 개화기 서구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열강들의 침입이 본격화되면서 물자가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점은 러일전쟁 당시 병참사령부가 입지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고, 이후 남문 밖 신시가지 형성과 공업발달의 가속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평양의 자본가들과 교회와

8) 이광린, “평양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10 (1999), 7~35. 이광린은 자본가층인 ‘자립적 중산층’의 기독교 수용이 평양의 급속한 기독교 확산에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한다.

9) 오미일, “1910~1920년대 평양지역 민족운동과 조선인 자본가층,” 『역사비평』 28 (1995) 269~304. 오미일은 ‘조선부르주아층’의 경제 사회활동을 규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평양지역의 자본가들이 기독교 재단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교회를 매개로 인적 연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평양지역 부르주아 민족운동이 교회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의 관련성이다. 자본가 층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은 교회의 자립도를 높일 뿐 아니라 교육 사업이 큰 과제였던 선교사들에게 좋은 동역자원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sup>10)</sup> 일례로, 1897년 평양 사창골 교회 교인들이 학교 건축을 위해 은전 60여 원에 엽전 100냥을 모아 기증했고<sup>11)</sup>, 1908년에는 장대현교회의 서문밖소학교 증축을 위해 교인들이 1,000여 원을 모아 기와집 19간을 건축하기도 하였다.<sup>12)</sup> 이러한 교인들의 재정적 지원은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지향했던 네비우스 선교정책<sup>13)</sup>의 ‘자립’의 정신과 맞물려 이후 기독교 학교 발전에 동력으로 작용했다.

요컨대 평양 자본가의 대부분이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교회를 매개로 인적 연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본은 교회 및 미션스쿨 운영과 발전에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며 선순환 구조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학교의 수도 1918년 기준 평안남도의 사립학교가 전국 809개교 가운데 141개교로 전국의 17.4%에 차지하였다. 이는 서북학회, 대한협회, 신민회 등 계몽운동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중요한 본거지로 평가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sup>14)</sup>

10)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의 재정 자립도에 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회 사역자들의 월급과 각종 학교 및 교회 설립을 위한 일반 성도들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컸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11) “치하홀 일,”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900.05.02.

12) “회중신문,”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7.03.17.

13) 중국 산둥에서 사역하였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네비우스(John Nevius, 1829-1893)가 주창한 것으로, 자립(自立), 자전(自傳), 자치(自治)하는 토착교회의 설립을 목표로 하는 선교방법이다. 이 선교 방안은 1891년 미국 북장로교 한국선교회의 공식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주요내용은 처음부터 외국 선교비에 의지하는 현지교회는 결코 “자립”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자립의지를 상실한 채 선교사와 외부 지원금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네비우스의 자립 선교정책은 한국선교 초기부터 모든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한국선교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3) 1920-30년대 평양 내 음악교육 환경

미북장로교 선교사들의 교육선교는 한국인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본국선교본부의 지원 속에 발전을 거듭하였다. 더욱이 1910년을 전후로 중등교육 수준의 미션스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고등교육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고심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속에 음악교과 또한 주요 과목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당시 주요 학교들은 교과명을 ‘가창’에서 ‘음악’으로 변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교육을 꾀하기도 하였다. 1920-30년대는 이러한 그간의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기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음악교육이 이전에 비해 다양화, 체계화, 전문화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 ① 음악교육의 다양화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이 발전)

1910년대까지 학교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학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였지만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 여건이 쉽게 마련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교육환경이 매우 더디게 개선될 수밖에 없었다. 음악교육에 있어서도 1910년대까지 다양한 악기는 고사하고 오르간과 풍금조차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상황이 되지 못했다. 선교사인 루츠 부인이 기고한 *KMF* 1938년 4월호 “*Music in Korea-Old and New*”에 의하면, 1920년대에 들어서야 모든 교회

- 
- 14) 평양의 조선인 자본가들이 식산흥업을 목적으로 근대적 공장을 설립하면서 업종으로 선택한 것인 자기업이었다. 이것은 당시의 공업 발전 단계와 지역적 경제 조건을 고려한 결과였다. 1908년에 창립된 평양자기제조주식회사의 경우 공개적으로 주주를 모집하여 다음해에 개업을 하게 되는데, 167명의 주주 가운데 확인되는 서북학회, 대한협회 회원만 대략 30명 이상이며, 회사설립을 주도했던 창립 발기인과 경영진 8명 중 6명이 서북학회나 대한협회 회원이었다. 특히 실권주주 가운데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105인 사건)에 연루된 신민회 회원으로 확인되는 인원만 14명으로 실제 신민회 회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미일, 『근대 한국의 자본가들』 (푸른역사, 2015) 참조.

와 학교들에 오르간과 피아노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으며, 파이프 오르간도 20년대에 몇몇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들여오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1910년대까지는 가창 위주의 교육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기악교육은 몇몇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주로 한 개인레슨에 기대는 실정이었다.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음악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평양은 지역적 특수성에 힘입어 타지역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 토착선교를 기조로 한 교육 정책과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지원마련, 중등교육 기관을 위한 선교 본부의 지속적인 지원은 1920년대 다양한 교육을 위한 토대로 작용했다. 게다가 평양 숭실은 교육전문 선교사였던 베어드(William M. Baird, 1862-1931)와 베커(Arthur L. Becker, 1879-1978)를 중심으로 한 장감연합선교회가 보다 체계적인 한국형 고등교육 시스템<sup>15)</sup>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학교로, 음악적으로도 선교초기부터 그래함 리(Graham Lee, 1861-1916)와 베어드 부인(Annie L. A. Baird, 1864-1916), 베커 부인(Arthur L. Becker, ?-1961) 등 대부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악적인 소양을 가진 선교사들이 활동한 공간이었다. 이들에 의해 나팔대가 조직되고 음악교재가 발간되기도 하는 등 양질의 음악 교육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16년 모우리(Eli M. Mowry, 1880-1971)의 주도로 만들어진 숭실 밴드는 건반과 가창음악교육 중심에서 벗어난 다양한 음악교육을 위한 하나의 혁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17년부터 매년 전국을 돌며 각종 공연과 전도 집회에서 활약한 이력은 당시의 신문 기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15) 베어드는 토착적 기독교 교육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이라는 밀도 높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열망은 1916년 감리교와의 결별로 미완에 이르게 되었지만, 당시의 베어드와 베커의 고민은 평양 숭실의 상대적으로 질 높은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기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16) 『매일신보』 1916년 7월 평양음악대 조직을 알리는 기사를 필두로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공연한 내용을 기사로 찾아볼 수 있다. 『매일신보』 1917.01.01; 『매일신보』

모우리에 의해 조직된 숭실밴드는 1929년 음악전문가이자 선교사인 말스베리(Rev. D. R. Malsbary, 1899-1977)의 부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말스베리는 피아노, 밴드 및 오케스트라, 합창 지휘 등을 전공한 전문 음악인으로 다양한 악기를 다룰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론을 교육하여 수많은 한국인 연주자 및 작곡가 양산에 브릿지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건반악기 위주의 음악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악기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점, 새로운 사운드 스키프를 형성하여 한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소리 전도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밴드는 평양의 음악적 환경 변화를 이끄는 주요 키워드라 할 수 있다.

(그림 3) 숭실 밴드와 선교사 (1920년대)



1917.01.07; 『매일신보』 1920.06.12; 『매일신보』 1923.10.27; 『동아일보』 1924.02.08; 『중외일보』 1927.06.10; 『동아일보』 1927.06.11; 『중외일보』 1929.03.07; 『조선중앙일보』 1935.03.24; 조선중앙일보 1934.11.23. 등.

단순 가창을 넘어선 다양한 합창운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된다. 합창 운동의 중심에도 역시 송실 출신의 선교사와 음악가들이 있었다. 송실의 남성합창단은 밴드와 함께 각종 공연과 행사에 동원되어 화성적 사운드를 선사했다. 학교와 교회의 경계가 흐렸던 만큼 합창운동은 성가대의 발전과도 맞닿아 있다.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성가대의 태생과 발전에 송실 관련 인사들이 깊숙이 관여하였다. 장대현교회의 길선주 목사는 1913년 모우리 선교사를 초청하여 성가대 조직과 운영을 부탁하였고, 이를 계기로 성가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sup>17)</sup> 1918년에 이르러 그 활약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미국 유학을 마치고 송실전문학교의 교수로 돌아온 박윤근이 반주를 도우며 합창운동에 합류하게 된 시점이기도 하다.<sup>18)</sup> 이 시기, 성가대를 위한 선곡집이 출판되기도 했는데, 다양한 합창 악보의 편집을 박윤근과 모우리, 조활용 등 송실에서 활약한 선교사와 교사들이 맡았다. 1920년대 송실 재학생이었던 김세형은 당시의 송실의 남성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평양 지역의 음악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증언하기도 하였다.<sup>19)</sup> 그 시기 평양의국인학교와 여학교의 성악과 합창을 담당하기도 했던 루츠(Mrs. D. L. Lutz, 1888-1979) 선교사는 평양여자신학교에서 음악을 교육하며 합창 및 성가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등 평양을 중심으로 성가대 발전에 공헌 하였다. 루츠는 미국에서 성악 및 합창 교사로 활약하기도 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일본총독부에 의해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되는 1940년까지 평양 내의 많은 학교들과 교회에서 성악과 합창대를 이끌었다.

## ② 체계화

초창기 찬송가와 낱장 악보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음악교육은 선교사들

17) 길진경, 『영계 길선주』 (종로서적, 1975), 220.

18) 길진경, 『영계 길선주』, 222.

19) 김세형, “한국에서 서양음악의 예술화발전과 마우리 박사,” 『예술원보』 11 (1967), 17.

의 노력과 1세대 한국인 음악가 양성의 결과로 보다 다양한 교재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래의 [표 3]은 평양에서 발간되어 현재까지 실체가 파악되는 악보집을 정리한 것이다. 특별히 1920-30년대에는 학교 교가를 비롯해 주일학교나 예배와 집회 때 제창할 수 있는 노래들은 물론 성가대만을 위한 합창대용 악보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노래집을 선보였다.

1923년에 출판된 『音樂大海』는 음악이론과 성가 악보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당시 교회 주일학교와 기독교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책의 편집자인 박경호와 한영길은 출간 당시 숭실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10년대 밴드를 지도했던 모우리 선교사 부부의 지도 아래 음악을 공부하였던 학생들이었다. 박경호는 1913년경에 창단된 장대현교회 성가대 초창기 멤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18년 성가대 명단에는 박경호와 한영길의 이름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안내서로 악보 보는 법과 악기, 음계, 화성, 보표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기본 악전과 함께 “예수께서부활하심”, “갈릴리”, “전파하라” 등의 찬양가와 “계성학교교가”, “숭실학교교가”, “정신학교교가” 등 미션스쿨의 교가 등 총 32곡을 수록하였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음악대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악이론을 집필하는데 있어서 평양에서 주로 활약한 음악전문인이자 선교사인 솔토 부인(Mrs. D. L. Soltau, 1886-?)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학생에 불과했던 박경호와 한영길이 음악이론서를 모두 집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솔토 부인의 개인 보고서에 한국 찬송가 공의회 위원을 지내며 음악용어의 번역에 관여하였다고 적은 점<sup>20)</sup>, 21년 내한해 29년까지 숭실에서 음악 교수로 활

20) “personal record blank of furloughed missionaries - personal record of Grace B. Soltau (Mrs. David L.)” January. 1927. (From PHS) 이 보고서에서 솔토는 Publications that you have written, edited or translated 항목에 “Music vocabulary in course of preparation On Board of Revisers of the Korean Church Hymnal”이라고 적고 있다.

약하며 피아니스트 박경호를 가르쳤다는 점<sup>21)</sup>, 그 외 솔토 부인의 평양에서의 음악적 영향력이 상당하였다는 점 등이 그 가능성을 한층 높여 준다고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양한 교재의 발간과 함께 한국인의 음악 연행적인 특징들을 고려한 교수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베어드 부인, 베커 부인, 그로브 목사는 한국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 반음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한국인들이 정확한 음정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선정하거나 작곡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sup>22)</sup> 그러한 일련의 고민이 담긴 악보집이 1915년에 발간된 『창가집』<sup>23)</sup>이다. 유치원 어린이부터 상급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그 교육 대상이 다양하였던 만큼 수요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1915년 경성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간되었으며 1920년에 재판이 인쇄되기도 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책은 일편이 46곡, 이편이 19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편에는 교가, 계절과 자연을 노래한 곡 등을 담았고, 이편에 새롭게 번역되거나 번안된 찬송가를 실었다. 대부분의 곡들이 반음정이 없거나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편집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1915년 이후 급성장하기 시작한 성가대 및 합창대를 위한 『聖歌隊用 聖歌選集』(1929), 『특선 200곡집』(1937), 일반 교육용 노래들과 성가를 수록한 『歌曲選集』(1929)과 『선발창가집』(1930), 어린이들을 위한 『兒童歌謠選集』(1938) 등 이전과는 달리 세분화된 목적과 대상을 고려한 악보집이 출간되는 특징들을 나타낸다.

21) “personal record blank of furloughed missionaries - personal record of Grace B. Soltau (Mrs. David L.)” January. 1927.

22) Paul L. Grove, “Adequate Song Book,” *KMF* (1914. 4)

23) 서문에 따르면, 한국인이 부르기 쉬운 곡들을 위주로 편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표 1) 1920-30년대 평양에서 발간된 악보집

초판발행	제목	저자(편집)	출판사	곡의 성격
1915	『창가집』	안애리 (Mrs. Baird)	야소교서관	학교 및 주일학교 노래
1923	『音樂大海』	박경호, 한영길	야소교서관	음악이론 및 성가
1929	『歌曲選集』	박태현	광명서관	다양한 세속노래와 성가
1929	『聖歌隊用 聖歌選集』	박윤근	삼성당	성가대용 합창곡집
1930	『선발창가집』	김명철	금명음악출판사	교육용 노래 및 성가곡
1937	『특선200곡집』	조활용	교회음악연구회	성가대용 합창곡집
1938	『兒童歌謠選集』	강신명	농민생활사	주일학교 및 유치원 노래

학교에서 진행된 음악교과 교육방법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단서를 찾지는 못했다. 다만, 평양외국인 학교에서 진행된 음악교육체계가 교육 시스템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34-35년도 학교 소개서에 따르면, 음악분과 수업은 크게 a) 정규 수업 (음악, 합창) b) 성악 및 악기 개별 수업 c) 밴드 등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b) 와 c) 는 별도의 수업료가 더 부과되었다. 음악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교내 리사이틀에 가능한 자주 참여해야 했는데, 이는 무대에서의 침착성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성악 및 악기 개별 레슨은 기본적으로 주 당 1회 30분으로, 매일 45분에서 한 시간가량의 연습이 요구되었으며, 피아노 고 급반의 경우엔 주 당 1회 60분 수업에 매일 두 시간씩의 연습이 학생들의 의무 사항이었다. 악기 개별 수업을 받는 학생들 가운데 밴드부 교사의 판단에 따라 밴드부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었다.<sup>24)</sup> 두 학교에서 음악부장이었던 말스베리나 루츠 등의 활약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식의 음악교육은 숭실전문 등 평양 소재 미션스쿨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4) “Pyongyang Foreign School, 1934-35”, 18-19. (from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이하 GCAH)

### ③ 교사의 전문성 강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식 교육에 대한 열망은 기독교 학교 수가 급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음악교과의 설치도 1910년을 기점으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신설학교가 늘어나는데 비해 교사를 확보하는 일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sup>25)</sup> 선교본부로 전달된 각 학교의 보고서에 의하면 1920년대 초까지도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를 전문적인 교사의 부족으로 꼽고 있다.<sup>26)</sup> 이는 이전의 음악교육 또한 음악적인 관심이나 재능이 있는 일반 선교사들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1920년대 내한하게 되는 음악 전문 선교사들의 등장은 이러한 학교의 필요와 갈증을 해결해 주는 단비와도 같은 존재였다. 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학교와 교회, 신학교, 성경학교 등에서 음악적인 역량을 한껏 발휘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몇 몇 주요 음악 전문 선교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21년 내한한 루츠는 오벌린 유치원 교사 양성 학교(Oberlin Kindergarten Training School) 및 오벌린 컨서바토리(Oberlin Conservatory of Music)를 졸업하고 모레이 음악 학교(Morey Music School) 등에서 성악 및 합창지도 교사를 지낸 음악 전문 선교사이다.<sup>27)</sup> 공립학교에서 음악교사로 활약하기도 한 이력을 바탕으로 한국 선교사 재임 시절, 학교와 교회에서 노래교육과 합창교육에 힘썼다. 개인 이력서에 의하면, 송실전문을 비롯해 평양 소

25) 정의여학교의 1921년 보고 자료에 의하면 적절한 교사의 부족이 약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26) 감리교 아카이브에서 구한 학교별 보고서의 한 파트인 needs는 이러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지내는 선교사의 상당수가 한국 현지의 필요에 대해 알리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에 열을 올리곤 했는데, 일례로 이화의 유치원 교육이 시작된 계기도 유치원 교육 전문가를 사역에 동원하게 된데서 시작되었다.

27) "Missionary Profile - Mrs. Dexter Nathaniel Lutz (Ernice Lenore Harpster)," May, 1958. (from PHS); "Pyongyang Foreign School, 1934-35", p.6 (from GCAH)

재 미션 스쿨과 신학교, 교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 1921년부터 1940년까지 평양 내 음악관련 업무를 총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했다.<sup>28)</sup> 태평양전쟁 여파로 잠시 한국을 떠나있던 그는 한국전쟁 이후 다시 내한하여 이화여대 음대 교수를 역임하는 등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사역을 이어갔다.<sup>29)</sup>

솔토 선교사는 엘퀸음악대학(Elqin College of Music)을 졸업한 음악교육가로, 1921년 내한하기 전까지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피아노와 오르간을 지도하였다.<sup>30)</sup> 1921년부터 29년까지 길지 않은 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송실전문학교를 비롯해 평양의국인학교, 송의여학교, 신학교 등지에서 음악교육에 힘쓴 솔토 부인은 평양송실 출신이자 우리나라의 1세대 음악가인 작곡가 김세형과 피아니스트 박경호를 제자로 길러내기도 했다. 기록에 따르면, “Melody Way”라고 하는 피아노 초급 교수법을 번역하고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피아노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연습용 건반 카드 보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반악기 교육의 열의를 보여주었다. 교육뿐만 아니라 공연문화를 이끌기도 하였는데, 산정현교회에서 주최한 대음악회나 평양 시내 남녀 중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축하음악회 등 다양한 음악회에 출연하여 피아노 독주와 합창 반주를 선보였다.

부츠(Florence E. S. Boots, 1896~?) 선교사는 비버 대학(Beaver College)과 제네바 대학(Geneva College)에서 수학한 음악 전문가로,<sup>31)</sup> 그의 행적은 평양외국인학교, 이화여전, 서울외국인학교와 중앙악우회 등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1925년부터 이화여전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교수하였으며, 바이올린 등을 개인교습하기도 하였다. 1926년엔 피아니스트 박경호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관현악단인 중앙악우회를 결성하여 1928년 창단 연주회

28) “Missionary Profile - Mrs. Dexter Nathaniel Lutz (Ernice Lenore Harpster),” May. 1958.

29) “Missionary Profile - Mrs. Dexter Nathaniel Lutz (Ernice Lenore Harpster),” May. 1958.

30) Grace Blanche Soltau, “Application,” Feb. 1921. (from PHS)

31) Florence E. Boots, “Application,” Jan. 1921. (from PHS)

를 갖기도 하였다. 각종 음악회에서 주로 바이올린 독주를 담당하였는데, 합주나 음악감독으로서 활약하기도 하였다. 1928-29년도에 평양외국인학교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 교육을 맡아 음악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평양에서 주로 활약한 루츠 선교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였다는 보고서 내용 등을 미루어보아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32)</sup>

김동진, 박태준, 채리숙, 한동일, 백건우 등 평양 숭실에서 수학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초기 음악가들의 선생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말스베리이다. 셔우드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음악교사로 활약한 경력을 가졌던 말스베리는 평양 숭실의 초청해 응하여 1929년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내한하였다.<sup>33)</sup> 내한 후 숭실대학 음악부장으로 일을 시작한 말스베리는, 1937년 신사참배 문제로 학교가 문을 닫을 때까지 음악을 가르치며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동시에 평양외국인학교의 음악부장으로도 활약하였는데, 두 학교에서 각종 악기와 함께 밴드와 합창, 이론 등을 가르쳤다. 개인 이력서에 따르면 정의여학교와 승의여학교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피아노를 지도하는 등 음악을 매개로 다양한 학생들을 두루 만났다.<sup>34)</sup> 주목할 만한 것은 밴드부와 합창대 발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다. 셔우드 음악학교 재학시절, 전공인 피아노 이외에도 밴드 및 오케스트라, 합창 지휘 등을 공부하였던 말스베리의 이력이 숭실 밴드의 활약과 합창부, 성가대 등의 발전을 이끌었다. 말스베리는 밴드 편곡과 편

32) Florence E. Boots,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Sep. 1938. (from PHS)

33) 홍정수 해제, "나운영 음악자료 8. 드와이트 말스베리," 『음악과 민족』 24 (2002), 195-205. 나운영이 보관했던 말스베리의 영문/한글 이력서를 그대로 옮겨 실고 있어, 한국에서 활동했던 자세한 개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평양 숭실에서 초청하여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언급은 이력서에서만 확인되는 내용으로, 당시 전문 음악가에 대한 수요가 상당했다는 사실과 선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인력 동원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34) 홍정수 해제, "나운영 음악자료 8. 드와이트 말스베리," (2002), 195-205.

성뿐 아니라 오케스트라 및 밴드의 다양한 악기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말스베리 부인(Pauline E. Malsbary)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셔우드 음악 학교 출신으로 피아노를 전공했다.<sup>35)</sup> 전문 반주자인 말스베리 부인은 다수의 성악가들과 함께 무대에 섰으며, 평양 외국인학교에서 피아노를 교육하였다. 남편 말스베리와 함께 피아노 듀오를 연주하기도 하는 등 당시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다.<sup>36)</sup>

이들 음악 전문 선교사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학교 가창교육, 합창 운동 및 성가대 양성, 밴드 및 오케스트라 교육, 유치원 및 음악교사 양성, 찬송가 편찬 및 교육 교재 발간, 악기 개인교습, 무대 활동 등 다양한 음악적인 활동에 관여하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들의 일상적 음악 취향을 바꾸고 전문 음악가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 3. 현상의 이면, 평양지역민들의 입장과 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30년대 평양은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과 교육 수요, 음악 전문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서구식 음악교육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서구 문화의 수용은 한국 수용자들의 독특한 사회적, 심리적인 입장이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즉 공동체적, 개인적 특수성이 이러한 변화를 추동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상황에 대한 밀도 있는 이해가 당시 음악역사를 두껍게 읽어내는 작업이기에 수용자, 특별히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들의 입장과 태도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35) "Pyongyang Foreign School, 1934-35," 6-7. (from GCAH)

36) 홍정수 해제, "나운영 음악자료 8. 드와이트 말스베리," (2002), 195-205.

## 1) 새로운 문화에 대한 판타지 형성

평양의 기독교 흡수와 파급력이 다른 도시를 압도하였다는 점은 지역적인 역사성과 자기정체감이 만나 일어난 화학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광린은 서북지역의 기독교 수용이 관제 입성이 어려웠던 평양 지역민들의 한계와 상업의 발달로 인한 ‘자립적 중산층’의 성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sup>37)</sup> 타지역에 비해 비단 종교뿐만 아니라 각종 학문과 제도, 문물 등 서구 문화 전반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위의 논의에 무게를 실어 준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에서 전문 음악가들이 대거 양산되고 서구 유럽의 음악관이 빠르게 흡수되었던 이면에 이러한 지역적 특징과 새로운 자기인식이 자리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문화에 대한 판타지를 형성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일까.

### ① 기존 봉건적 질서 내 상인의 신분적 한계

조선 후기부터 상공업이 발달한 평양은 봉건적 질서가 매우 유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이광린과 오미일은 조선후기부터 무역 등을 통해 상업이 발달한 평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자본가층이 두텁게 형성되었으며 일본총독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들의 지역적 기반이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밝힌다. 하지만 평양의 자본가층, 이른바 부르주아층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반층은 기존 권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미 봉건적 계층사회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계 질서는 여전히 유효하였기 때문에 상업을 바탕으로 성장한 중산층에게 계층 전복은 그 실효성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양반층을 주요 식자층으로 삼고 있는 <황성신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 매일신보>의 논조가 1910년대를 지나도 여전히 대조적인 구도를 유지하고 있

37) 이광린, “평양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10 (1999), 7~35.

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sup>38)</sup> 이런 한계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철학과 세계관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기독교는 그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자본가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이 볼 때 기독교 학교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근대적 교육은 구조적 전복과 개인의 사회적 구원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본가층에게 음악은 계몽과 근대식 교육을 상징할 뿐 아니라 문명에 욕망을 시청각적으로 자극하는 매개체였을 것이다.

또 일제강점기의 한국인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구 기독교가 중요한 방어막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눈을 돌린 외국의 사업가들과의 교류나 총독부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자구책으로써 선교사와의 관계는 중요한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두 가지 사건, 1894년 평양 기독교 박해와 청일전쟁은 평양민들이 선교사들의 정치적 힘을 재인식하게 된 계기로 평가되기도 한다.<sup>39)</sup> 1894년에 평양 선교를 개척하려했던 북장로교 선교사 사무엘 마펏(Samuel A. Moffet, 1864-1939)과 제임스 홀(H. W. James Hall, 1860-1894)이 사역을 위해 거처를 구입하였다가 주변 한국인들의 반발로 소동이 일어났는데, 평양 기독교 박해 사건은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당시 평양감사였던 민병석은 소동이 일어나자 격앙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선교사들을 도운 한국인 조사들을 체포하고 관련 한국인 기독교인들을 구금·심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한국인들이 처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다급해진 선교사들은 위기에 처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영국 영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결과적으로 영국 영사 가드너(C. T. Gardiner)와 미국 영사 실(J. M. B. Sill)의 공식적인 항의로 수감자들 모두 석방되게 되었고 배상까지 받게 된다. 이 일은

38) 이에 대한 논의는 앙드레 슈미트의 저작 『제국, 그 사이의 한국』(휴머니스트, 2007)에서 다루고 있다.

39) 이철, “개신교 선교 초기 평양지역민들의 선교사 인식연구 -1894년 평양기독교박해 사건과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5 (2008), 10-13. 참고.

평양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는데, 온갖 수탈과 폐약을 자행해오던 관리들이 서양인들의 요구에 뜻을 굽혔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촉발된 청일전쟁은 평양성 전투에서 본격화되었다. 일본군이 평양을 중심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50-60개의 요새를 만들면서 평양을 전쟁 요새화하였다. 결과적으로 평양은 물리적, 정신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주목할 점은 전쟁 중에 선교사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선교사의 거주지나 교회로 피신하였고, 그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거란 인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콜레라 등의 전염병이 돌면서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의료활동이 평양민들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람들이 선교사나 교회에 갖고 있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sup>40)</sup> 전쟁 후에 사람들이 전보다 더 개방적인 태도로 선교사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서양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선교사에게 친근감을 표하기 시작했다고 선교사들은 전한다.<sup>41)</sup>

요컨대, 신분적인 한계와 상황적인 한계는 몇 가지 사건과 정황을 통해 선교사들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선교사들이 표현하고 만들어내는 음악문화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수많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

평양은 역사적으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 당사자

40) 이철, “개신교 선교 초기 평양지역민들의 선교사 인식연구 -1894년 평양기독교박해 사건과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5 (2008), 19-23. 참고.

41) Gifford, *Every-day life in Korea*, 222. Horace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Political-Social-Religious*(Fleming H. Revell Co., 1908), 145. 재인용.

였다. 게다가 열강의 침입을 넘어 일본의 식민이라는 치욕이 더해지게 된다. 전쟁의 참상과 식민의 현실을 경험하며 얻게 된 트라우마는 수치심, 열등감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평양지역민들의 특수한 정서를 읽는데 단초를 제공한다. 물론 당시를 사는 모든 한국인들이 겪었을 문제임이 분명하지만 평양이 전쟁의 한복판이었다는 점에서 그 트라우마는 기독교와의 밀착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결과적으로 선교사들의 문명에 대한 기조와 한국에 대한 평가는 한국인의 문명화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기독교적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특별히 주목하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근대의 특수성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근대적 문명이 이상적 준거로 여겨 이에 미치지 못함은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감정적으로는 수치감을 유발하는 기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미정은 “수치와 근대”라는 글을 통해, ‘수치’라는 감정이 서양 문명의 규범화하여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삼게 했다고 지적한다. 즉 끊임없는 침략 속에서 자신과 국력의 나약함을 대면해야 했던 현실은 힘을 길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김미정은 당시의 신문사설의 논조의 기저에서 한국인들의 깊은 수치심을 발견했다. 1896년 8월 1일자 『독립신문』의 사설은 열등한 처지에 있는 우리가 ‘남’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설파한다. 논설은 서구를 규범으로 상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무지를 수치스러운 상태로 이해한다. 이러한 방식의 논설은 당시 엘리트가 가진 스스로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문명에 대한 이해를 드러낸다. 자신을 타자화하여 서구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보는 시선은 평양의 자본가층이 갖고 있던 심리적인 상태와 동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 등을 통해 드러나는 선교사들의 문명개화나 근대화에 대한 이해와 논조 또한 교회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평양 교인들의 근대화 열망을 더욱 부추겼던 것으로 보인다. 1901년

9월 12일자 『그리스도신문』은 “인종과 지화의 등급: (만국략사·)”에서 아프리카의 주민이나 아메리카 원주민을 “지화치 못한 빅성”으로, 조선이나 청국인을 “반지화의 빅성”으로, 일본이나 유럽인을 “문명의 빅성”으로 일컫는다. 일부 지도부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당시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문명에 대한 이해는 사회진화론적인 맥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이 극단적인 예에 속하긴하나 이러한 방식의 문명에 대한 선교사들의 이해와 교회적인 입장은 기독교인으로써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평양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즉, 평양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트라우마와 서구(선교사)가 가진 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들이 녹아들어, 문명은 한국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업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교사들의 한국과 문명에 대한 이해와 성과가 한국인들의 생각을 더욱 강화시켰음은 물론이다. 결과적으로 문명의 옷을 입은 서구의 새로운 소리와 문화를 동경하고 배우고 익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 2) 서구 음악에 대한 동경

Our life here has been an interesting one since the first day. My especial for the Korean is in Sunday school teaching, music instruction (they are keen to learn Western music) and Bible teaching in the institutes and classes. We have Men's college here, and are looking forward to having music department in it in the future. Therefore, all my teaching of the Koreans, is done through the college, wether men or women (in music).<sup>42)</sup>

위의 글은 음악 전문 선교사 솔토 부인이 개인보고서에 밝힌 내용이다.

42)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June 19, 1925. (from PHS)

주일학교에서 음악을 지도하고 있던 솔토는 한국인들의 서구 음악에 대한 열망을 읽었다. 그리고 평양 내에 있었던 대학 내에 곧 음악부서가 설치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아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음악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 또한 매우 컸음을 시사한다.

『중앙』 1934년 6월호를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졌던 서양음악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음악에 대한 설문”은 당시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서구 음악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설문은 총 10명의 유명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 어떤 음악을 좋아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는 누구며, 인상 깊은 음악은 무엇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음악에 대한 설문결과

	이름	직업	응답 1	응답 2
1	이헌구	문학평론가	막연하게 베이스나 첼로	베토벤, 쇼팽, 드뷔시의 음악
2	조벽암	시인	하와이언 기타	베토벤과 레오노레 제3서곡
3	구영숙	의사	바이올린	드보르자크와 유모레스크
4	채필근	목사	바이올린과 성악	슈베르트와 그의 교향악
5	이○○	-	서양음악	엘먼
6	이만규	교육자	시조, 단소	박연
7	김두헌	철학자	바이올린 피아노 4부 합창	베토벤
8	김영희	배우	단소, 파이프 오르간	크라이슬러, 파데레프스키
9	송금선	교육자	양악	이에내
10	김창제	문필가	피아노	별로 없다.

설문에 응한 10명 가운데 9명이 양악기 소리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으며, 7명은 유럽의 음악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악기에 대한 이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서구적인 소리에 대한 순수미학적인 견해를

엿볼 수 있다. “음악은 개념을 초월한 순수한 시상의 발현”이라 언급한 조벽암이나 “점잖고 은근하고 신비하고 고결하며 우아한 악기”인 피아프 오르간을 좋아한다고 응답한 김영희, “순수 예술의 황홀한 세계에서..” 등은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다. 서구음악의 화성적 특징을 서구 음악의 미덕으로 꼽기도 하는데, “동양음악에 반하여 우선 템포가 빠르고 표현이 복잡한 것, 음의 중복상쇄에서 산출되는 최고의 멜로디”를 서양음악이라고 평하기도 했으며, 피아노, 4부 합창을 좋아한다고 밝힌 김두현은 “복잡다단한 가운데 조화와 통일이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사회진화론적 입장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음악이라는 점, 즉 서구 유럽식 관점으로 음악을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현금(지금)은 제반 문물 상 서양 문명의 압도 시대이니까...”라며 시기적으로 서구 문명이 대세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당시의 엘리트들의 서양음악에 대한 견해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경향이 평양에서 1세대 음악가들이 다수 출현하였다는 사실의 이면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1934년 『중앙』에 실린 “조선 음악가 소개 특집”이란 기사를 살펴보자. 기사에는 정훈모, 채선엽 등 성악가 12명, 김영환, 김원복, 이애내 등 피아니스트 15명, 홍영후, 안병소, 이영세 등 바이올리니스트 6명, 그 밖에 이상준, 김형준, 안기영 등의 13명을 포함한 총 46명의 음악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표4]에서 보다시피, 조사 대상 가운데 다수의 출신지가 선천이나 평양, 원산 등의 서북지역이거나 경성임을 알 수 있다. 평양과 경성이 음악교육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게다가 대구의 현제명이나 박태준 등은 본격적인 음악교육을 위해 평양 송실에서 수학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평양이 가진 음악적 토양이 한반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표 3〕 주요 음악가들의 출신지 (교육을 중심으로)

평양 (14)	정훈모, 이인선, 차재일, 이유선, 김영환, 박경호, 윤성덕, 독고선, 최성두, 이광준,곽정순, 안익태, 곽정선, 백남철
원산 (3)	박경희, 조은경, 김명애
황해 (4)	백정진, 이순영, 이상준, 김형준
경성 (14)	박경희, 김원복, 고봉경, 이애내, 홍영후, 최효영, 홍성유, 안병소, 이영세, 홍재유, 홍은유, 김애식, (한복덕, 김재호)
경기 (2)	안보승, 김영희
대구 (3)	현제명, 박태준, 김정순
경북 (1)	권태호
충북 (1)	정순철
전남 (2)	채선엽, 최영순

요컨대, 이미 30년대는 사는 젊은 엘리트들에게 문명인으로써의 정체감이 내재되어 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근대적 인간, 문명에 어울리는 삶, 힘을 가진 공동체로의 열망은 서양음악에 대한 동경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음악적으로 19세기의 절대 미학적인 음악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서유럽 중산층의 특징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인다. 서구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흥내 내기로 근대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그러한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최신의 유행을 따르는 취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당시 엘리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 4. 사운드의 변화와 문명을 향한 제의적 공간

평양에서 일어난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선교사들에 의한 음악교육 환경의 변화는 문명화를 향한 한국인들의 강한 열망과 만나 음악문화의 일상

적 사운드를 변화시키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른바 ‘기독교화 된 도시’ 평양은 어떤 공간으로 해석 가능한가. 크리스토퍼 스몰의 음악회장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평양을 보는 좋은 시각을 제공한다.

인류학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음악적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연행’(performance)과 ‘제의’(ritual)의 맥락으로 이해하는데, 크리스토퍼 스몰은 ‘작품’이 아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음악적 연행’에 주목하고 이를 제의적 행위로 파악, 이른바 ‘음악하기’<sup>43)</sup>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음악회장에서 연주되는 음악 작품들이란 사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신들에 대해 들려주는 여러 이야기라는 것, 따라서 그러한 음악 작품들은 신화(myth)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연주회장의 공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여러 관계의 개념들을 탐구(explore)하고 확인(confirm)하며 찬미(celebrate)하는 것이다.”<sup>44)</sup> 즉 음악하기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확인하며 찬미하는 일종의 의례(儀禮) 또는 의식(儀式)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스몰이 이해한 연행예술로써의 음악을 적용하여 평양의 음악적 상황을 살펴본다면, 근대인을 욕망하는 당시 한국인들에게 ‘서양음악하기’는 새로운 정체성을 탐구하고 확인하며 찬미하는 일종의 의식으로 해석 가능하다. 특히 교회와 미션스쿨, 광장과 선교사 관사가 모여 있는 선교기지는 이러한 의식이 행해지는 일종의 공연장, 연주회장의 의미를 갖는다. 각종 모임

43) 스몰은 음악작품에 우위를 두는 기존의 시각을 전복하고 음악을 ‘연주’의 관점에서 볼 것을 주장한다. 결국 명사로서의 음악 대신에 동사로서의 ‘음악하다’(to music)와 동명사로서의 ‘음악하기’(musicking)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게 된다. ‘음악하다’라는 말은 음악 연행에 참여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말로, 연주와 작곡, 듣기, 세팅과 티켓 판매, 뒷정리 및 청소에 이르는 행위를 포함한다. C. Small, *Musicking: The Meanings of Performing and Listening*.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8). 조선우 최유준 옮김, 『뮤지킹 음악하기』 효형출판 (2004), 25.

44) C. Small, *Musicking: The Meanings of Performing and Listening*.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8). 조선우 최유준 옮김, 『뮤지킹 음악하기』 효형출판 (2004), 25.

과 연주회, 예배, 브라스 밴드를 포함한 전도대의 활동 등 새로운 사운드 스케이프를 형성하는 집약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양한 예배와 모임, 음악회 등은 끊임없이 공간을 매우며 한국인들의 문명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선교기지가 어떻게 사운드 스케이프 변화의 역할이 가능했는지 [그림 1]의 조감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조감도 하단에는 총 41개의 건물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은 선교사들의 사택으로 총 23건에 달한다. 선교사들이 대부분 악기를 다루고 집에서 음악을 즐겼던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사택 또한 소리적 영향력에서 거리가 멀다고 하긴 어렵지만 대중이 모이는 장소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학교의 영향력에 비하기는 쉽지 않다. 조감도 내에 학교 건물로 사용된 경우는 모두 9건에 이르는데, 북장로교에서 세운 주요학교들이 분포해 있다. 승의 여학교와 남·여신학교(성경학교), 평양외국인학교, 송실중학, 송실전문학교(연합기독교대학) 등이 모두 선교 기지 안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앞서 살펴봤다시피, 정규 음악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특별활동과 전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리적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교기지 조감도의 설명에 의하면, 기지 내 학교들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당시 1700명 정도라고 하니, 선교기지를 드나들었던 인구의 수가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학교들이 선교기지를 둘러싸듯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조감도의 좌측 하단에 위치한 송실 중학과 송실 전문, 우측 외곽에 위치한 승의 여학교, 상단에 있는 여성 신학교 등의 위치를 볼 때 학교들과 그 기숙사들이 선교기지를 감싸 안고 있는 형세를 보인다. 이것은 곧 학교에서의 소리가 선교기지 내·외부 동시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각종 음악활동을 통해, 기숙사에서 예배 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울려 퍼진 서구적 소리문화가 주변 지역을 자극했을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당시에 학교는 음악연주를 위한 무대를 의미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서도 선교기지 입구에 위치해 있던 숭실전문의 연주홀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각종 음악회와 부흥회, 학교음악회, 예배 등이 19세기 유럽의 무대를 재현하는 공간으로, 신문명의 세계를 열어주는 문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선교기지 내부에 교회는 거의 없지만, 선교사들의 주요 활동영역이라는 점에서 선교기지의 지부로 역할 했을 것이다. 선교기지 그림에는 각종 교회와 학교에 참여한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평양 도심에만 15개의 교회에 15,000명의 신도가 출석하고 있다고 나타난다. 아마도 북장로교회가 설립한 교회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교파의 교회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회들에서의 각종 음악회와 예배 의전은 선교기지 못지않은 영향력으로 서양음악 향유를 위한 중요한 토대로 역할하였다. 평양 내 교회와 공연장에서 연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초기 음악가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평양의 선교기지와 교회는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선다.

(그림 4) A Song Service in The Women's Class (1930년대)



[그림 4]는 평양의 여성신학교육에 커다란 공을 세운 선교사 마가렛 여사를 위한 봉헌 예식의 한 순서였던 음악 예배를 보여준다.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았던 여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스승에게 감사를 노래로 표현한 곡을 한 목소리로 불렀다. 이들에게 이 사운드는 발전적인 미래와 교회에 대한 소망을 선사하는 동시에 교회와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지는 의식이 되었으리라.

(그림 5) Sunday School, Pyeng Yang\_Class of girls (1920년대)



[그림 5]는 여성들을 위한 주일학교의 모습으로, 어린 소녀부터 아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시의 주일학교는 보수적인 한국의 문화에 따라 남녀를 구별하여 교육하였다. 1920년 당시 가장 많은 주일학교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평양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 22년부터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세워지며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기도 한다. 특히 찬송가 가창을 중심으로 한 음악교육은 주일학교에서 빠지지 않았으며, 아이들을 반음

가창에 익숙하지 않았던 한국인들에게 서구의 7음계를 교육해야하는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지속적으로 듣고 부른 아이들은 음악적 취향과 감각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림 6] Meeting of Women's in Pyengyang (1930)



[그림 6]은 평양장로회신학교에서 여성부흥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마펫 선교사의 설교로 진행된 이 날 부흥회에서 그는 신앙적 감수성을 고양하기 위해 여러 찬양을 함께 불렀을 것이며, 음악을 배경으로 기도회를 인도했을 것이다. 여성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되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여성으로서의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 되었다.

(그림 7) 숭실전문학교 순회음악연주회 순서 (1930년대)



[그림 7]은 숭실전문학교 밴드의 순회음악회 팸플릿 순서를 담고 있다. 밴드 연주 중간에 선교사 루츠부인의 독창, 말스베리의 피아노 독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선교사 루즈나 말스베리는 전문 음악가로서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연주 무대를 통해 질 높은 서양음악을 경험하게 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 따라서 표면적인 전도 목적을 넘어 일반 클래식 음악들이 다수 포함되어 서양음악 자체를 경험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유럽식 공연문화를 경험하고 문명인으로서의 교양을 습득하게 되는 장이었음을 팸플릿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평양은 전도를 위한 야외 밴드 연주, 평양의 감사까지도 참여했던 연합운동회, 전국각지에서 몰려들었던 각종 집회와 부흥회, 학교와 교회를 무대로 한 수많은 음악회, 다양한 미션스쿨들의 졸업식 등은 다양한 서구 음악에 노출되는 장이었다. 드넓은 선교기지 내외에서 울려 퍼졌을 찬송가와 악대 음악이 반복을 통해 점차 일상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은 새로움이 익숙함으로 체화되는 과정의 다름 아니다. 특히나 새로운 문화와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에게 그 흡수되는 속도를 매우 빠를 수밖에 없었다.

## 5. 나가며

1907년을 전후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평양의 기독교 인구는 종교적인 영향력과 함께 음악적인 파급력을 의미했다.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교인들이 많아지는 만큼 서구식 교육열 또한 선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이 되었다. 즉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교육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일상적 사운드스케이프의 변화가 점차적인 음악문화 전반의 변화를 이끌었던 것이다.

특히 1920-30년대 평양에서 이루어진 음악교육은 1910년대부터 시작된 체계화 시도의 실효성을 거둔 때이다. 가창중심의 교육이 다양한 기악교육

으로 확대되었다. 밴드 및 오케스트라가 조직되어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 갔으며 합창이 활성화되면서 성가대의 조직도 보편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또한 다양한 악보집이 출판되면서 현실적이지 못했던 악보수급이 조금씩 그 출구를 보이기 시작했다. 『창가집』을 필두로 『音樂大海』, 『歌曲選集』, 『特選200曲集』, 『兒童歌謠曲集』 등 이전과는 다르게 장르별로 세분화된 내용을 선보이며 교회와 학교의 필요를 채웠다. 이러한 변화는 음악전문 선교사들의 영향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1920년대부터 내한한 루츠, 솔토, 말스베리 부부, 부츠 등 음악적 전문성을 가진 이들은 자신들의 전공영역에 따라 유치원교원 양성, 합창 운동과 성가대 육성, 다양한 무대 활동, 관현악단 창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활약의 스펙트럼만큼이나 이들의 음악적 영향력 또한 초기 음악계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평양의 특별한 지역적 정서와 만나 음악적 토양의 극적인 변이를 끌어냈다. 상업의 발달과 전쟁의 한복판이었던 피해의 경험, 그리고 피식민자로서의 수치감은 근대인으로 변모하는데 뼈를 깎는 아픔이자 처절한 자기 부정의 과정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구적 소리문화는 문명의 다른 이름으로 평양민들의 교육열을 부채질했다.

전쟁과 식민이라는 민족적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근대적인 주체로의 욕망을 자극했다면, 선교기지 내에서 일어난 각종 예배와 집회, 학교에서의 공연과 음악교육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확인하는, 이른바 제의적인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느 도시와는 달리 많은 수의 교회가 세워져 종교적인 영향력이 컸던 평양은 선교기지를 중심으로 한 도심 자체가 음악회장으로 역할하며 서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근대인 형성의 공간이었다고 해석 가능하다.

그래서 마참 부산가는 기차가 비에 걸려서 오후까지 머물게 되었음으로 음악회를 열어 거기서 수입된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이라도 만들어먹이고 싶다는 뜻을 말하고, 허가와 원조하여 주기를 청하였다.<sup>45)</sup>

“힘을 주어야지요! 문명을 주어야지요!”<sup>46)</sup>

소설 <무정>의 한 부분이다. 이 글에서 이광수는 삼랑전 자선음악회라는 장치를 통해 민족의 고난을 극복하려는 연주인들이 근대적 주체성을 획득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음악 연주가 가진 제의적 성격을 드러내며 어떻게 한국인들이 근대적 주체성을 획득해 가는지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저 음악회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피해 주민들을 도우려는 시도였지만, 공연장에서 울려 퍼지는 서양음악은 고난을 이기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힘을 상징하는 것이자, 현실에 주저앉지 않도록 각성시키는 소리였다. 즉 음악회를 통해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문명을 주는 것이며, 문명의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구 음악이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당시의 한반도를 사는 지식인들의 심리적 사회적 상황과 음악과의 만남이 어떤 문화 변이를 가져왔는지 짐작해 보게 한다.

서구 음악과의 접촉은 평양민들이 얻고자 했던 바로 그 힘, 즉 문명이라는 점에서 선교사들의 평양에서의 음악활동이 갖는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선교사들에 의해 새로운 소리문화를 습득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근대적 주체성을 획득하고자 했던 열망을 노래하고 연주하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20에이커에 이르는 선교기지를 중심으로, 평양은 공연장이자 무대로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 가는 의례적 공간이 될 수 있었다

45) 이광수, 『무정』, (홍문당서점, 1918) 537.

46) 이광수, 『무정』, 544.

## 참고문헌

## &lt;1차 자료&gt;

- 『그리스도신문』, 『대한그리스도인회보』, 『대한매일신보』, 『조선크리스도인회보』, 『황성신문』
- 홍정수 해제. “드와이트 말스배리.” 『음악과 민족』 24 (2002), 195-205.
- Boots, Florence E.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Sep. 1938.
- Boots, Florence E. “Application.” Jan. 1921.
- Soltau, Grace Blanche. “Application.” Feb. 1921.
-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June 19, 1925.
- “Missionary Profile - Mrs. Dexter Nathaniel Lutz (Ernice Lenore Harpster).” May. 1958.
- “Pyongyang Foreign School, 1934-35.”
- “personal record blank of furloughed missionaries - personal record of Grace B. Soltau (Mrs. David L.)” Jan. 1927
-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Korea Mission, 1884~1943.
- Korea Mission Field, Korean Review*

## &lt;2차 자료&gt;

- 길진경. 『영계 길선주』 종로서적, 1975.
- 김미정. “수치와 근대.” 『사회와 이론』 21/1 (2012).
- 김세형. “한국에서 서양음악의 예술화발전과 마우리 박사.” 『예술원보』 11 (1967).
- 류대영. “한말 기독교 신문의 문명개화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22 (2005).
- 류대영. “한말 기독교 신문의 근대국가론: 인민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29 (2008).

- 변창욱. “내한(來韓) 선교사의 교육선교 (1884-1940): 한국교회의 교육선교에 주는 선교적 함의.” 『선교와 신학』 36 (2015) 139-172.
- 손원영. “한국초기 주일학교의 특성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18 (2008) 153-178.
- 앙드레 슈미드 / 정여울 역. 『제국, 그 사이의 한국』 휴머니스트, 2007.
- 윤춘병. 『한국기독교신문 잡지 100년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오미일. 『근대 한국의 자본가들』 푸른역사, 2015.
- 오미일. “1910~1920년대 평양지역 민족운동과 조선인 자본가층.” 『역사비평』 28 (1995) 269-304.
- 이광린. “평양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10 (1999).
- 이광수. 『무정』 홍문당서점, 1918.
- 이유선. 『한국양악백년사』 음악춘추사, 1985.
- 이철, “개신교 선교 초기 평양지역민들의 선교사 인식연구 -1894년 평양 기독교박해사건과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5 (2008). 19-23.
- 크리스토퍼 스몰 / 조선우, 최유준 역. 『뮤지킹 음악하기』 효형출판, 2004.
- Underwood, Horace G. *The Call of Korea: Political-Social-Religious*, Fleming H. Revell Co., 1908.

**Abstract****Ritual space for new sound culture: music education by foreign missionaries in Pyongyang Korea at 1920-30s**

Kim, Sa-rang

As a study on musical activities of foreign missionaries in Korea, this paper traces music educational contents, context and influences focusing on Pyongyang in 1920-30s.

After the Great Revival Movement(1907), Pyongyang became an important stronghold and the main arena of the foreign missionaries. As a result, rapid expansion of congregations triggered a change in local culture, which implies western music activities also occurred actively in this city.

Among the stations that Foreign Missionary Union set up at 7 major cities in Korea, Pyongyang station was known as the largest and most convenient that is why the structure and size of space. In the station up to 120 acres, there were many kinds of schools, hospitals, churches, houses of missionaries as well. As a result, great and small meetings, retreats, assembly and bible conferences were held in the station as well as a lot of concerts and performances on western musical sound. Pyongyang mission station as new sound space was driven craving Korean to modernization. Especially, music education was crucial power for leading change of sound culture.

Since the churches in Pyongyang grew rapidly, demand for school also increased steeply compared to other city. Various schools erected consequentially with higher demand for missionaries. In Pyongyang, there were not only foreign school for missionary kids but also a lot of Christian mission schools such as Soongsil, Soongeui, Soongsil college(presbyterian)

where missionaries taught music to children and students under various programs. Among the missionaries in Pyongyang, there were professional music teachers, like Mr. and Mrs. Malsbary, D. N. Luts, F. S. Boots, Mrs. D. L. Soltau in the 1920~30s. These missionaries contributed to be rooted western music with more systematic method. Consequently, this indicates their curriculum might have been a critical model for music education in Korea.

Thus, this paper intends to depict situation of music education at the time and how to transit from Feudal Koreans to Modern People through new sound space by foreign missionaries. I draw this argument based on the primary sources included ministry reports, private diaries of missionaries, news papers as well as school documents.

Keywords: missionaries, western music, ritual, modern, modernization, music education, mission school, Pyongyang, Soongsil-college.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6년 4월 15일	2016년 5월 24일 - 6월 15일	2016년 6월 17일